

전남체전 두달 앞둔 무안군 불법 관광안내판 방치 여전

도로 점유 입간판 등 관리감독 안돼 “지역관광 이미지 먹칠” 주민들 원성

제53회 전남도 체육대회 개막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체계적인 무안 홍보안내판 관리가 아쉽다. 무안군은 관광과 농·어촌 개발을 연계시켜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체험 관광지 활성화, 지역관광 이미지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착 기본적인 관광안내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도 1호선과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IC 황토골 휴게소 입구에는 무안군에서 설치한 관광안내소 입간판과 오송우 미술관, 초의선사 생가 안내

표지판이 차레로 서있다. 하지만 이들 안내 표지판은 익산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접도구역(도로 제한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에서는 개인이 가져다놓은 컨테이너 박스에 가려 글씨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인근 휴게소 소유자가 바뀌면서 광고판이 변경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1996년 설치한 관광안내 표지판을 방치해오다 불법인 것

을 뒤늦게 최근에야 확인하고 원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군의 관광행정에 대해 “군 핵심 관광사업에 역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문서 보전기간이 5년이다 보니 관련 서류가 없어 10여년전 관련 근무자를 찾아 일일이 확인한 결과 1996년도에 군이 허가받지 않고 설치했다”며 “빠른 시일에 원상회복해 관광안내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나흘간 무안 스포츠클럽을 비롯해 22개 경기장에서 제53회 전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무안군이 국도 1호선과 서해안고속도로 무안IC 황토골 휴게소 입구에 설치한 관광안내소 입간판이 컨테이너에 가려져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목포시가 4월 초 유달산과 로데오광장 일원에서 유달산 꽃 축제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모습.

목포 ‘유달산 꽃 축제’ 프로그램 공모

4월초 개막 앞두고 체험 아이디어 등 28일까지 접수

목포시가 4월 초 개막예정인 ‘유달산 꽃 축제’를 앞두고 28일까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유달산 봄꽃을 형상화하고, 유달산 바로알기를 위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관광객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하는 봄꽃 축제에 어울리는 창의적 프로그램 ▲원도심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등 축제효과를 확산하는 프로그램 ▲기타 유달산 꽃 축제 발전을 위한 제안 및 아이디어 등이다.

응모방법은 제안서 작성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거나, 시 홈페이지(참여마당-목포 시민제안-유

달산 꽃 축제 제안) 또는 축제담당자 이메일(kei131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응모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자를 선정, 5월중 시상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시민 및 관광객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개화시기에 맞춰 4월 초순경 토~일요일 이틀간 유달산과 로데오광장 일원에서 유달산 꽃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고석규기자 yousou@

고산 윤선도 문학 창작 산실 금쇄동 원림 유적 발굴 조사

조선 중기 문신이자 시인인 고산 윤선도(1587~1671) 선생의 문학 창작 산실인 금쇄동 원림(사적 제432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본격화된다.

해남군은 ‘윤선도유적 및 현산 고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5월부터 2년간 금쇄동 원림 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수립한 ‘윤선도 유적 및 현산 고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윤선도가 한국 최초의 정원 전문가임을 조명하고, 금쇄동 원림이 우리나라 정원사에서 갖는 역사적 가치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전체 사업비(128억원) 가운데 올해 4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뒤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복원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산이 다녔던



고산 윤선도 선생이 작품을 쓰기 위해 올랐다는 바위로 전해지는 금쇄동 취수정.

옛길을 복원한 문학 탐방로를 조성하고, 금쇄동 원림이 지닌 정원사 가치와 문화적 가치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답사객이 방문했을 때 조선 중기 시대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쇄동은 ‘산중진곡’, ‘금쇄동기’ 같은 작품을 탄생시킨 고산 시문학 창작의 산실인 만큼 문학사적 연구 가치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유적 복원 사업이 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금쇄동은 윤선도가 54세에 ‘금쇄석계’를 얻는 꿈을 꾸었는데 며칠 되지 않아 꿈과 일치되는 지역을 찾았다고 해 ‘금쇄동’이라 명명했다. 지난 1996년 지역 향토사가가 발견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전북



정읍농협, 장학금 5500만원 전달

정읍농협은 17일 2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자녀 및 사회적 약자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정읍농협은 조합원 자녀 50명과 사회적 약자 계층 5명 등 모두 55명에게 5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읍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가계비 절감과 자녀 학비 경감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농협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641명의 학생에게 5억 7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정읍농협 관계자는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익의 대부분을 지역의 봉사사업과 농업인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환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발효 미생물 연구 ‘청신호’

군, 기업·혁신기관들과 총 17건 96억 기술투자 협약

순창군이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발효 미생물 일변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창군은 최근 기업체 및 혁신지원기관간 공동 기술투자 총 17건에 대해 96억 규모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 지원사업 가운데 미생물 분야에 대한 우위권 산업점 플랫폼이 마련되는 등 발효미생물 분야 연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지난 14일 순창 발효 미생물 센터에서 21개 기업 및 기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생물관련 산·학·연 공동투자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국내 토착 발효미생물은 은행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재)순창 발효미생물 관리센터(이사장 황숙주) 주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전북도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순창 발효 미생물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5000여 산업용 균주의 특성과 공동연구 가능분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대상(주) 등 19개 기업체와 전주 생물소재연구소, 진안 흥삼연구소 등 두 곳의 혁신지원기관 간 공동기술 투자 협약식도 가졌다.

협약은 발효 미생물센터와 기업체간, 혁신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연구와 투자를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

황숙주 이사장은 “국가자원의 토착 발효미생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산·학·연 기술투자 협력은 미생물산업 발전 기반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순창 발효미생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용 균주들이 향후 우리나라 발효식품산업 기업체 및 기관의 핵심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시민 안녕 기원합니다” 군산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갑오년 중동 당산제가 최근 군산시 중동 경로당에서 열렸다. 당산제는 마을사람들이 음력 정초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 풍어를 기원하며 지내는 공동제례를 말한다. <군산시 제공>

단신

정읍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10개월간 운영

정읍시는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수집, 에너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하 수집단)을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한다.

정읍시는 17일 수집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에는 총 7억4000만원의 사업

비가 투입되며, 저소득층 및 실업자 52명이 참여한다. 한편 매년 정읍에서 1570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이용가능한 많은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집비용의 과다 소요 등 여러 이유로 발생량의 10%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군 동네 체육시설 확충 9억 투자

고창군이 동네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 조성한다.

고창군은 올해 총 사업비 9억 원(국·도비 3억6000만원, 군비 5억4000만원)을 확보해 ▲풋살장(해리면 하리리) ▲농구장(아산면 상갑리) ▲족구장(삼원면 연화리) 등을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사업비 9억원을 들여 풋살장(농업기술센터 인근)과 농구장(고창읍 모암과출소 인근), 족구장(무장면사무소 내)을 조성했고, 간이 야구장(고창읍 월말리 생활야구경기장내)은 설계역역중에 있다.

/고창=음향영기자 cy0370@

남원시, 장애인 경용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남원시가 지난 13일 민원실 입구에 장애인 경용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자동차 등록원부,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65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수수료는 주민등록 등·초본(200원), 가족관계등록부(500원)으로 이용가능하며, 초·중·고 졸업증명서는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일부 민원을 제외하고 365일 24시간 발급 가능하다.

/남원=백승기기자 bs8787@

전주시 ‘어린이 숲체험 교실’ 무료 운영

내달부터 12월까지

전주시는 ‘어린이 숲체험 교실’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3회(월·수·금요일) 무료 운영한다.

숲체험 교실은 숲체험 교사의 숲생태에 대한 눈높이 해설을 들으며 숲속 자연물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과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도심 근교 견지산내 편백숲에서 오송제로 연결되는 생태탐방 코스와 완산철쭉 삼나무림에서 생태습지원으로 이어지는 체험코스가 많은 인

기를 얻고 있다. 모악산 생태숲 교실과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야생화 체험교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숲은 아이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놀이터로 작은 돌맹이, 떨어진 나뭇잎, 들꽃 하나도 아이들에게 훌륭한 놀잇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주와 완주지역 유치원, 초·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198개 단체에서 90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전국 우수 중·고교 초청 야구대회 21개팀 참가

전국 야구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2014 전국 우수 중·고교 초청 야구대회가 지난 15일 개막해 28일까지 2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 야구협회, 군산 시민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경기는 군산중·군산남중 등 중학교 12개 팀, 군산상고·서술고 등

고등학교 9개 팀 700여명이 참가했다. 월명야구장을 비롯해 군산상고, 군산중 구장에서 조별 풀리그를 펼쳐 우승팀을 가린다.

군산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대회 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